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공동대표: 김종배·김창국·박상중 110-734 서울시 종로구 인곡동 175-87 인곡빌딩 5층 전화: 723-5300 / 팩스: 723-5055
천안만하호텔 PSPD, 나무누리유니텔: 참여연대 / 전자우편: pspd@soback.kornet.nm.kr /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koreanet.org/~pspd/>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및 정치부
발 신 참여연대 (담당: 시민감시국장 김형완 723-5302)
제 목 양심수에 대한 대폭적인 사면복권을 요구하는 성명
날 짜 1998. 3. 13. (충 1 쪽)

성명서

양심수에게도 대폭적인 사면복권을

1998. 3. 13. (금)

새정부의 이번 사면·복권조치를 환영한다.

이번 조치로 인해 그동안 경미한 법규위반 때문에 사회생활의 불편을 겪어 온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러나 양심수에 대한 전면적인 석방이 예상보다 상당부분 축소된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50년만의 정권교체로 출범한 ‘국민의 정부’, ‘진정한 민주정부’에서는 지난 날 권위주의 정권에 맞서 싸워 온 인사들의 희생에 대해 정당한 평가가 있어야 한다. 과거 정권의 편파수사, 표적사정, 인권유린사태 등 부당한 법집행에 의해 희생된 인사들을 그대로 감옥에 가두어 둔 채 어떻게 ‘정권교체’를 말하고 ‘국민의 정부’를 내세울 수 있단 말인가.

우리는 박노해시인과 백태웅씨를 포함한 양심수에 대해서 이제라도 정부는 추가적인 사면·복권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과거청산’과 ‘새로운 시대’는 오직 ‘양심의 죄’ 때문에 영어의 고통을 겪어야만 하는 비극적인 상황부터 종언시키는 데서 출발한다고 믿는다.

끝.

참여연대 공동대표 김종배. 김창국. 박상중